

양계산업, 당신이 주인입니다



장 두 향
(농수축산신문사 기자)

내츠크릴 매니저(Natural Manager). 열
마전 방영됐던 농업 홍보 TV광고에
서 목부와 농부들을 지칭했던 말이다.

‘선진국에서는 자연을 일구는 사람들을
내츠크릴 매니저라고 부릅니다’가 그 광고의
카피였던 것 같다.

그런데 정작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
스스로 혹은 서로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
심히 의심스럽다.

특히 양계농가는 같은 축산인들에게서
‘일년에 한 회전에서만 크게 한 건 올리면
된다는 생각에 실질적인 농장관리나 경영
보다는 시세차익에 훨씬 심혈을 기울인다’
는 지적을 종종 받기도 하는 만큼 자타가
공인하는 내츠크릴 매니저는 쉽게 찾기 어려
울 듯 하다.

이 부문에서 화가 나거나 위 명예에 공감
하지 않고 “나 자신이 염연한 내 농장의 관
리경영주체이자 자연을 기반으로한 산업
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”고 발
끈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양계업계는 발전
가능성이 있다. 양계를 담당하는 기자로서
발끈한 분들이 많기를 기대한다.

매니저라는 단어는 보통 기업이나 사업
체를 총괄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사람을 이
름한다. 때문에 회사가 살아도 그만 안살아
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쉬
주어지지 않는 직책이다.

그러나 많은 농가들은 ‘사실 양계든 뭐든
1차 산업은 사양산업’이라는 인식을 깊이
하고 있는 듯 해 매니저라는 단어가 어색한
것도 사실이다.

모든 회의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
한 결정을 하기 위해 모인 많은 농가들이 현
안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던 단어는
‘어쩔 수 없다’와 ‘어차피’, ‘~하기 마련’
이었기 때문이다. 장기불황에 지치고 악성
가축질병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던 상황을
감안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
이대로 기죽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.
양계산업은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.
전문가들도 해외 선진국의 경우 불포화지
방산이 많은 백색육이 쇠고기나 돼지고기

의 적색육보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금육 소비가 성장하고 있다며 가능성 있는 산업임을 강조했다.

농가든 공무원이든 업체경영진이든 스스로가 산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한다면 위생과 방역에 좀 더 신경쓰게 될 것이고 유통시킬 때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다. 이 글을 읽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업주체라는 점을 감안하건대, 지금 이 글을 보며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양계 산업은 지금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고, 나와 내 주위부터 조금씩 변하고 다듬어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양계 산업은 조만간 남부럽지 않은 분야가 될 것이다.

장기불황에 지치고 악성 가축질병에 음초려들 수 밖에 없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점다고 이대로 기록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. 양계산업은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.

전 직원들의 경영진화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일본 자동차 그룹 도요타의 예에서 보듯이 어떤 산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산업 주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의식과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. 양계산업은 좀 젊어져도 좋다. **양계**

양계속보 게재내용 및 구독안내

1. 게재내용

- 가. 새소식 : 국내외 양계업계 소식 및 질병, 생산과 관련된 각종 새소식 등을 게재
- 나. 금후전망 : 양계산물 유통에 대한 금후 전망을 육계, 달걀을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다. 양계산물 시세 : 일별 달걀, 산지 육계가격 및 각종 병아리, 노계, 토종닭 시세 등
- 라. 10대 회사 주간 양계사료 생산실적
- 마. 육용종계·실용계, 산란종계·실용계의 주간 종란입란 및 병아리 발생실적

2. 구독료 및 구독방법

- 가. 구독료 : 1부당 연간 15만원[단체구독 : 10만원(20인 이상)]
- 나. 발송방법 : 팩시밀리 또는 E-mail
- 다. 발송횟수 : 주 2회(화, 금요일)

3. 구독신청 및 문의

- 농협 097-01-000953(예금주: 대한양계협회)
- (☎ 02-588-7651 담당 : 유 종 현)